



정경대학 비대면 수업 수강 강의실

(사진=김경민 기자)

# 만성적인 공간 부족 ‘소유’에서 ‘공유’로 인식 전환 필요한 때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강나윤 기자 nadori814@khu.ac.kr

#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일상 회복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학교도 대면 강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가 학습 공간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공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재점화되고 있다. 2017년 우리학교는 SPACE21 건물을 준공해 3개 단과대학(단과대)을 이전했지만, 여전히 각 단과대와 사용자들은 공간 부족 문제를 절감하고 있다. 우리 신문은 본격적인 대면 수업 전환에 앞서 학내 공간 현황을 짚고, 그에 따른 대안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 강의실·학습환경 공간 활용 아쉬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은 강의실이다. 2021년 대학기관

평가인증 결과 우리학교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은 1.7㎡로 교육부 인증평가 기준인 1.2㎡를 상회한다. 하지만 단과대 별로 강의실 환경이 상이해 각기 다른 공간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서울캠퍼스(서울캠) 정경대학의 경우 구성원들 사이에서 강의실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경대학 소속의 19학번 A씨는 “대면 수업 시절에 공간 부족 문제를 체감했던 적이 있다”며 “대면 수업이 재개됐을 때의 상황이 걱정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반대로 서울캠 경영대학은 강의실 수가 여유로운 편이다. 다만 경영대학 특성상 학생 수요가 많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영대학 행정실 관계자는 “강의실 수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강의마다 요구되는 강의실 크기를 모두 충족하기가 힘들

다”며 “공간 문제를 놓고 본다면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학생 자치 공간이 위치한 학생회관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다. 학생회관은 주로 동아리방으로 이뤄져 각 동아리 중심으로 관리된다. 코로나19로 동아리 활동이 뜸해지면서 이들 공간은 공실 상태로 방치돼 있다. 그럼에도 학생회관은 각 구역을 동아리별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간 재창출이 제한적이다. 서울캠 공간 사용현황에 대해 총무관리처는 “기존 공간 배정 시 명확한 적정기준 없이 배정돼 공간 배정의 불균형과 사용자마다 면적의 편차가 심한 경우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수업의 형태가 대면과 비대면이 병행되면서 강의실 외 공간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서울캠 총학은 대면 전환에도 비대면 강의를 일정 비율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추진 중이며, 한균태 총장 역시 비대면 수업의 장점을 끌고 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곧바로 이어 수강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들을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타 대학에서는 오픈 스페이스 개념을 도입해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픈 스페이스는 학습자가 다양한 학습 목표를 두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말한다. 서강대의

경우, 학사지원팀이 ‘비대면 상시 개방 강의실’을 운영해 소속 단과대학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우리학교도 일부 단과대에서 비대면 강의 참여용 강의실을 마련해 줬다. 서울캠은 정경대학, 이과대학, 국제캠퍼스는 공과대학, 국제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강의실을 개방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소속 단과대학 학생만이 이용할 수 있어 단과대학 간 배타성을 탈피하지 못한 상황이다.

## 학교 측도 개선 위해 노력 중이나 인식 변화 우선돼야

우리학교도 공간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월 우리학교는 효율적 공간관리를 목적으로 부총장 주재로 부서장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선안으로 ▲공간관리규정 및 세부지침 제정 ▲공간 재조정 ▲공간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나왔다. 이후 총무관리처 관할 하에 공간관리규정을 위해 공간 배정 기준을 정립하고 있으며, 공간관리시스템을 위해서는 시설 분류체계 확립과 현황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회의를 이끌었던 최희섭 행정·재정부총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측에서도 공간 부족 문제를 일찍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남는 강의실 공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과대학 간 강의실을 공유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장은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최 부총장은 “학교 차원에서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캠퍼스 구성원들의 공간에 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간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 및 대학 구성원의 변하지 않는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장은 “이전부터 대학 내 반영구적 소유의 개념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다”며 “공간의 설계 및 운영이 이전의 절대적, 독점적 소유에서 융복합적 공유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장은 “학교 캠퍼스 공간의 이용자로서, 학생들의 시선과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학생들에게 공간 문제를 해결에 관심과 참여를 보일 것을 권유했다.



청 빈 학생회관 내부

(사진=김경민 기자)